

K-기획전시(Special Exhibition):

서울우리소리박물관 <한강, 소리로 흐르다>

Hangang, Flowing Through Sounds, Seoul Museum of Korean Sound

오준호*

한강은 한반도 중서부를 관통하여 서해로 흘러드는 총연장 약 514km의 하천으로, 예로부터 한반도의 정치·경제·문화적 중심축으로 기능해 왔다.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충적지로 인해 인간의 거주와 생업이 집중되었고, 교통과 교류의 주요 경로로서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국가 형성기에는 군사적 요충지이자 행정 질서를 유지하는 전략적 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 근현대에 들어서는 도시화와 산업화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수도 서울의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결정지었다.

오늘날의 한강은 과거의 생업과 노동의 현장을 넘어, 여가와 문화 활동의 중심이자 한국 사회의 정체성과 집합적 감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강은 단순한 자연 경관을 넘어, 시대의 변화와 인간의 삶이 교차하는 ‘소리의 공간’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이러한 시각에서 2025년 6월 19일부터 2026년 5월 28일까지 기획 전시 <한강, 소리로 흐르다>를 개최한다. 본 전시는 한강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소리와 기억의 문화경관’으로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청각적 기록의 의미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한국 철도 문화과 문화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ojh6407@naver.com

1. 전시의 개요



〈사진 1〉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전경

전시는 한강과 관련된 민요, 음반, 지도, 시각 자료, 체험형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며, 소리를 매개로 한강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소리를 듣고 감상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소리와 공간, 그리고 기억의 층위를 동시에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한강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면적으로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기획전은 한강의 역사와 소리를 중심으로 설정하여, ‘강’이라는 자연 공간과 인간의 삶, 민요라는 무형문화적 산물이 맺어온 상호 관계를 입체적으로 탐색하도록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전시는 민요 가사 속에 등장하는 지명과 한강의 풍광을 고지도·산수화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전시하였으며, 초기 음반 기술이 담아낸 민요의 원형을 SP·LP 음반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영상, 기억 공유 코너와 같은 참여형 장치를 도입하여, 관람객의 기억이 수동적으로 환기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감각적 경험을 매개로 전시의 적극적 주체로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전시는 과거와 현재, 텍스트와 음향, 학술적 연구와 대중적 체험을 교차시키는 실험적 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진 2〉 기획전시 한강 소리로 흐르다
홍보 포스터

2. 전시의 구성

전시는 제1부 ‘한강에서 노닐다’, 제2부 ‘한강에서 일하다’, 제3부 ‘한강과 함께하다’로 이어지는 삼부 구성으로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유희의 공간, 노동의 현장, 정서의 상징으로서 한강이 지닌 다층적 의미를 단계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입구를 지나 첫 번째 공간에 들어서면 한강을 유람과 풍류의 공간으로 바라본 전시가 관람객을 맞는다. 대표적으로 <한강수타령>과 <노들강변>이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었으며, 옆에는 당시 음반사 로고와 제작 배경을 설명하는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 3> 한강수타령 전시실의 모습

<한강수타령>은 한강과 서울 지역 주변의 자연 및 뱃놀이를 주제로 한 내용을 노랫말로 담고 있는 경기도 통속민요이다. 20세기 초 황해도 민요 중 <간지타령>과 한강수타령 후렴구의 노랫말 및 선율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간지타령>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들강변>은 1934년 발표한 신불출(申不出, 1905~?) 작사, 문호월(文湖月, 1908~1952) 작곡, 박부용(朴芙蓉, 1901~?) 노래의 신민요이다. 노랫말은 한강변 노들나무의 풍경에 빗대어 무정한 세월과 쌓인 한을 표현하였으며, 경기민요 가창자들이 애창하면서 경기민요의 대표곡으로 자리 잡았다.

관람객은 음반을 통해 흘러나오는 민요 가사 속 지명(관악산, 노들, 압구정 등)이 과거 한강이 지녔던 자연적 풍광과 문화적 공간성을 생생하게 환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전시장에 병치된 한강 고지도와 악장가사를 함께 감상함으로써, 소리와 공간,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경험을 얻게 된다. 이러한 연출 방식은 한강의 놀이문화를 ‘소리의 기억’으로 재현하고자 한 기획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다.

두 번째 공간은 한강을 노동과 생업의 무대로 재현하였다. 벽면에는 인제 뗏목꾼, 마포나룻터 일꾼의 작업 장면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시선뱃노래>, <인제 뗏목아리랑>의 가사집과 악보가 전시되어 있었다.

<시선뱃노래>는 물고기, 빨감, 곡식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를 실어 나르던 시선배의 노동 과정에서 형성된 노래로, 노를 저으며 부르던 전형적인 노동요에 해당한다. 시선배

는 강화도에서 출발하여 행주산성, 염창동, 선유봉, 밤섬 등을 거쳐 마포에 이르기까지 한강을 역류하며 올라왔다. 이 과정에서 불린 노래는 한강의 운송망과 지역적 생활사를 생생히 반영한다.

한편, 〈인제뗏목아리랑〉은 강원도 설악산 일대에서 벌목한 나무를 뗏목으로 띄어 인제에서 출발한 후, 춘천을 지나 서울 광나루까지 내려오며 불리던 아리랑이다. 이는 목재 운송이라는 구체적 경제 활동 속에서 생성된 소리로, 지역적 특성과 노동의 고단함을 동시에 담아낸다.

세 번째 공간에서는 전국적으로 불렸던 민요 속에 등장하는 한강의 이미지가 전시되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 각 지역의 민요 가사 속에는 한강이 지리적 배경이자 정서적 상징으로 삽입되어 있으며, 〈물푸는소리〉·〈모심는소리〉와 같은 노동요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더 나아가 아동들이 불렀던 전래동요에 이르기까지, 한강은 생활 세계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로 기능하였다.

특히, “간다 못간다 얼마나 울었나 정거장 마당이 한강수가 되었네”라는 구절은 〈진도아리랑〉, 〈아라리〉, 〈산아지타령〉, 〈청춘가〉, 〈너영너영〉 등 다수의 민요에 공통적으로 수용되어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강이 문화적 기호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곧, 한강은 이별과 기다림, 그리고 감정의 격량을 집약적으로 표상하는 상징적 장치로 작동하였으며, 이는 한국 민요 전반에 공유된 정서적 토대 위에서 형성된 집합적 심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3. 전시 자료와 체험 공간





〈사진 4〉 전시 자료 및 체험 공간

이번 전시는 다양한 매체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강과 소리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구현하였다. 무엇보다도 음반 자료에서는 SP·LP 음반이 전시되어, 초기 음반 기술이 포착한 민요의 원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구술적 전승을 기록화한 음반 자료가 전통 음악사 연구의 중요한 단서가 됨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기술 매체를 통해 무형의 소리가 어떻게 고정되고 재생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능한다. 관람객은 진열된 음반을 통해 민요가 구비문학적 산물이 아니라 근대적 매체를 통해 대중적 확산을 경험한 문화 현상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

문헌 자료로는 가사집, 사설집, 악보가 함께 배치되어 민요가 지닌 텍스트적 층위와 변주 가능성을 조명하였다. 이는 구비로만 전승되던 노래가 문자화·기록화되는 과정을 통해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 준다. 가사의 세부적 변주와 악보의 방식은 민요가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상황과 지역,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연한 전통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관람객은 문헌 자료를 통해 민요의 고정성과 가변성, 전승과 변형의 이중성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시각 자료로는 산수화, 고지도, 사진, 영상이 전시되어 소리의 공간성이 시각적 형상으로 구체화되었다. 산수화와 고지도는 민요 가사 속에 등장하는 지명을 실제 공간과 연결해 주며, 사진과 영상은 근대 이후 한강 주변의 생활사와 풍경을 시각적으로 재현한다. 이러한 시각 자료는 소리와 공간,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는 효과를 창출하여, 전시가 지향하는 ‘소리의 기억’이라는 주제를 감각적으로 환기시켰다.

더불어 전시장 한편에는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관람자의 능동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이 공간에서는 소리와 공간을 동시에 경험하도록 설계된 장치들이 배치되었다. 예컨대 영상 코너에서는 물결 소리, 새소리, 뗏목이 강을 가르는 소리 등이 결합된 음향이 상영되어, 관람객이 한강의 현장적 분위기를 오감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억 공유 코너는 관람객의 개인적 경험을 기록하고 이를 전시 서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이 공간에는 “한강에서 들은 버스킹 기타 소리”, “여의도 불꽃놀이 뒤 잔잔한 강물 소리”, “연인과의 추억” 등 관람객들의 구체적 기억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전시가 과거의 민요를 재현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의 삶과 감각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잘 보여 준다.

나아가 이 코너는 관람객이 개별적으로 지닌 기억을 공적 공간 안에 가시화함으로써, 전시가 다성적 내러티브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기억 공유 코너는 전시 기획 의도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서, 무형의 소리 유산과 동시대적 삶이 어떻게 교차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실험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전시는 음반·문헌·시각 자료의 삼자 결합을 통해 민요라는 무형문화적 자산을 총체적 문화경험으로 변환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전시의 미래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의 기획전 〈한강, 소리로 흐르다〉는 한강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소리 문화의 다층적 의미망을 드러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전시는 소리와 공간, 기억과 정서를 교차시키는 방식을 통해, 민요를 연구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 재맥락화하였다.

학문적 관점에서 본다면, 본 전시는 소리 전시의 방법론, 무형문화자산의 시각화 전략, 그리고 참여형 전시 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풍부한 논점을 제시한다. 동시에 음향 복원의 한계, 해설의 학술성과 대중성의 균형, 서울 중심성 보완, 장기적 기록화의 필요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드러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전시는 민요라는 전통적 소리 유산을 현대적 전시 기법 속에서 재현함으로써, 향후 한국 전통음악과 공간 문화 연구, 나아가 전시 기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